

丁茶山書翰集

流配地에서 보낸 편지

정약용 지음·박석무 옮김

**酒量이 아버를 훨씬 넘다니!**

(둘째에게)

너의 형이 왔을 때 시험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.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너의 형보다 배(倍)도 넘는다 하더구나. 왜 글 공부에는 그 아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버를 넘어서는 거냐? 이거야 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너의 외할아버지 절도사공(節度使公)은 술 일곱잔을 거뜰히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. 벼슬을 그만 두신 후 늘고 막에 세월을 보내시며 처음으로 열두어 방울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 술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술만 적시곤 하셨단다.

나는 아직까지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고 내 스스로의 주량을 알지 못한다. 벼슬하기 전에 중희당(重熙堂: 창덕궁에 있는 전각)에서 세번 일등을 했던 덕택으로 효주를 옥필통(玉筆筒)에 가득 채워서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혼자말로 「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」라고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 않고 또 춘당대(春塘台: 창경궁에 있는 대, 옛날에 과거를 보이던

곳)에서 임금을 모시던 공부하던 중 맛있는 술을 큰 주발로 하나씩 하사받았는데 그 때 여러 학사(學士)들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정신을 잃고 혹 남쪽으로 향해 절을 하고(임금은 북쪽에 있었음), 더러는 마루에 누워 뒹굴고 하였지만 나는 내가 읽을 책을 다 읽고 과목을 마쳤으며 조금도 착오 없게 하였단다. 다만 퇴근하였을 때 조금 취기가 있었을 뿐이었다. 그랬지마나 너는 지난날 내가 술 마실 때 반 잔 이상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느냐?

참으로 술맛이란 입술에 적시는 데 있다. 저들 소가 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 넣는 사람들이야 무슨 맛을 알겠느냐? 술을 마시는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저들 얼굴빛이 흥당무처럼 붉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굶아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취가 있겠느냐? 요컨대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폭사하는 사람들이 많다. 술독(酒毒)이 오장육부에 배어들어가 하루 아침에 썩어 들어가면 온 몸이 무너지고 만다. 이거야 말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.

무릇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흉패한 행동이 모두 술 때문이었기에 옛날에도 조그마한 술잔을 만들어 조금씩 마시게 하였고 더러 그러한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(節酒)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(孔子)께서는 「유명 무실한 게 조그만 술잔이로구나」라고 탄식하였단다.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좁은 폐족의 한사람으로서 못된 술 주정뱅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이 사람이 되겠느냐? 조심하고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. 제발 이 천애(天涯)의 애처로운 아버지의 말을 따르도록 하라. 술로 인한 병은 등에서도 나고 뇌에서도 나며 치루(癡漏)가 되기도 하고 황달도 되어 별별스런 기괴한 병이 일어나고 한번 병이나면 백 가지 약도 효험이 없게 된다. 너에게 바라고 비노니 입에서 딱 끊고 마시지 말도록 하라.\*)

---

\*) 정약용 짓고 박석무 옮긴 『丁茶山 書翰集—流配地에서 보낸 편지』(시인사, 1980)에서 발췌함.